

책장 넘기듯 가는 세월의 흐름

저무는 임신년 마지막날의 書齋斷想

이상섭

연세대 교수 · 영문학

“좀 더 살아 보아라. 세월 가는 것이 책장 넘어가듯 할 테니.” 칠순을 넘기신 아버님께서 겨우 40살이 되는 아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버님은 수십년간이나 애독하시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책장을 넘기고 계셨다. 겨우 40을 넘기면서 아들이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른다고 소리내어 푸념을 했더니 아버님이 들으셨던 것이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흘러버린 지금, 아들은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책장 넘기기에 비유하신 아버님의 뜻을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다. 늦게늦게 철이 좀 든 것이다.

세월이 책장 넘어가듯 빨리 흐른다는 비유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책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뿐이다. 그때 아버님은 깨알 같은 그 잡지의 글자들을 하나라도 놓치기 아까우신 듯 모조리 훑으시곤 했다.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습관처럼 되어서 팔순이 넘어 별세하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아버님은 성경 등 다른 여러 책을 같이 읽으셨다. 아버님은 세월의 흐름과 책장넘기기로 경주를 하시는 것 같았다. 세월이 빠르면 그만큼 빨리 책장을 넘기셨던 것 같다.

못난 아들은 이미 세월의 흐름에 책장 넘기기로 맞서기를 포기한지 오래다. 세월은 자꾸 빨라지는데 책장은 점점 더디 넘어간다. 큰 탈이 아닌가!

아버님과 아들은 어떻게 다른가? 아들은 세월은 재빨리 흐르는데 책장 넘길 시간은 없다고 느낀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기관과 통신수단이 시간적 여유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줄 듯 싶은데, 웬일인지 밥먹고 잠잘 시간조차도 모자랄 지경이니 책 들고 앉아 있을 짬이 있을 턱이 없다. 그토록 분주하게 몸과 마음을 쓰는데도 정작 무슨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속에 파묻혀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뿐이다.

그러나 아버님은 세상과는 담 쌓고 신선처럼 책장만 넘기셨던가? 아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세상일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다. 아들보다는 훨씬 결단력이 있으셔서 책장 넘기시는 시간을 먼저 일정하게 떼어 놓으시고 나머지 시간에 세상일에 관여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아들의 세대는 온갖 세상일에 관여하고 또 관여당하고 나서, 후시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책장을 넘기는 데에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 기특하다고 여길 만큼 되어 있다.

아주 먼 옛날을 회고해보면, 아들도 세월보다도 책장 넘기는 속도가 오히려 빠른 적도 있었다. 소년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세월이 말을 안 들어 주는 것 같던 시절에, 책장은 얼마나 쉽게 넘어갔던가!

이십년전에 칠순을 넘기신 아버님이 “세월이 책장 넘기듯 간다”고 하셨었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책장을 넘기고 계셨다. 그분에게는 세월 보내시는 것이 책장 넘기시는 것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책장을 넘기시면서 세월을 보내셨다. 하루는 몇 쪽의 책장을 넘기셨기에 지나갔다.

넘길 책장이 없어 안타깝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들이 청소년기를 보낸 1950년대, 초라한 구멍가게 같은 서점에 무슨 읽을거리가 있었던가! 참말 그때는 책에 대한 허기가 폭폭 들던 시대였다. 그래서 어찌는 수 없이 갖배운 외국어로 아버님이 구독하시던 그 잡지를 뜯어 읽기도 했었다. (그 덕에 아들은 지금도 그 잡지의 애독자가 되어 있다.)

세상일이 하도 바빠 책을 펴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아마 핑계이기 쉽다. 우선, 시간이 아무리 남아 돌아도 책은 펴들지 않을 사람에게 그런 핑계는 안성맞춤이다. 다음으로는, 세상일에 파묻혀 돌아가다 보니 어느 게 진짜 해야 할 일이고 어느 건 안 해도 되는 일인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핑계는 유용하다. 실상 우리 대부분은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되는 일과 안해야 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할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것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에 우리 몸과 마음을 내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안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안 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을 거리낌없이 해치우는 사람이 책을 펴들 가능성은 요만치도 없을 터이니, 책을 펴들기로 기대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될 일을 과감히 가려내어 버리는 사람 축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 중에 안 해도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나에게 관련된 일 중에 안해도 될 일은 없는 것 같고 모두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선진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인 끝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쉬고 금요일도 절반은 쉬는 직장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긴 주말을 어떻게들 보내는지 조사해봤더니, 또다른 돈벌이 즉 부업을 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고, 피치 못할 밀렸던 일을 한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긴 주말은 다시금 해야 할 일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하기는 정신병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자기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의식이라고 한다. 시간의 선용은 반드시 의무의 이행이어야 하고 의무는 조직사회가 부과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벗어나기 힘들다. 쉽게 말해서 현대인은 모두 시간을 돈벌이에 투입하여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한다는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가를 늘려주고 여가는 생활의 질적 윤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의 예언은 대체로 빗나갔다. 최근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개인의 의무의 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여가가 주어질 바도 거의 없거니와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의 선용방법은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거의 전적으로 가르쳐지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중고등학교시절에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 사람은 대학입시에서 실패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형편이다.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아마 ‘여가’가 생길법하지만, 그 여가는 또래들끼리 떠들썩하게 노는 데 주로 쓰이고 책읽기에는 거의 안 쓰이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우리의 대학공부가 학점과 관계 없는 책읽기를 권장, 유도하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예컨대 ‘경제원론’이라는, 수강생이 많은 과목이, 말서스의 ‘인구론’이나 정다산의 ‘목민심서’를 읽고프게 하는 강의가 되는 예가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대학에서나 개설서는 ‘문학개론’이 별로 잘 쓴 것 같지도 못한 「문학원론」 따위의 멧없는 제목의 교과서 외에 「구운몽」, 「외화별」, 「잃어버린 낙원」의 책장을 넘기며 흐르는 시간과 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엄밀히 말하여

우리의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까지도 자유로운 독서의 권장보다는 오히려 방해를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 하겠다. 간혹 예외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대학생은 예외없이 학점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을 보아도 이는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과공부에서까지 자유독서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병통임이 분명하다. 자유로운 독서의욕을 자극할 수 없는 문과강의는 실패임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학과공부를 위한 시간을 떼어 놓고서도 남은 시간이, 적어도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에게는, 있다. 이 시간을 떠들썩하게 놀고 보내는 데에 얼마쯤 할애한대도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마저도 책장 넘기는 데에는 쓸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학생탓이 아니라 교육탓이다.

교육탓? 교수, 교사, 어른탓이다. 책을 줄이는 어른이 너무 적다. 세상일에 바쁘게 돌아가는 어른들-교수도 포함해서-에게서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은 역시 종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바쁜일 중에는 책읽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안 하고, 대신 자기 집에서 개인컴퓨터 통신기계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사무를 보게 된다고 한다. 학생도 시간표에 따라 등교하여 강의실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기 방에서 교수의 강의를 듣고 화면을 통하여 질문, 토론에 참여하고 실험까지도 하게 된다고 한다. 꿈 같은 미래이다. 다만, 그것은 악몽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런 미래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집마저 사무실로, 교실로 만들고 만 결과인 것이다. 적어도 집은 자기와 가족의 성역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몫쓸 세상일이 집까지 침투하여 집을 완전히 정복한 형국이니 악몽이 아닌가! 그 악몽에 잠잠지 시달릴 터인즉, 자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이 어찌 남아나라! 집이 사무실로 변하는 날, 사람은 완전히 사무원, 오직 사무원이 되는 날이다. 사람은 이미 적절한 시간의 분량만을 세상일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개인적 자유시간으로 삼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일 것이다. 세상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려면 세상일을 해야 하는데 돈은 언제나 모자라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다. 백만원이 있는 사람은 꼭 백만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느끼고 십억원이 있는 사람은 꼭 십억원만 더 있으면 살겠다고 느끼는 판이니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24시간 꼬박 새울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모두 이상한 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모두 여가를 '반납' 하는 정신질환자가 아닐까?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려본다. 어른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펴보지 못하겠다고 '알라비'를 대는 한편, 시력과 집중력이 약해진 것을 핑계로 삼기도 한다. 필자 역시 그 핑계를 대는 데에 능란하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된 핑계이기 쉽다. 확실히 젊은 시절보다 시력이 감퇴된 것은 사실이다. 필자 역시 20대 초반에는 안경없이 책을 읽었지만 그후 곧 안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은 글읽기용 돋보기의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러나 독서를 위해서는 시력이 1.2이거나 0.5이거나 상관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안경처럼 고마운 문명의 이기도 많지 않을 것이다. 시력은 교정이 가능하다. 시력에 독서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중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것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젊은 시절보다 집중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인생의 경험이 주는 판단력이

집중력의 부족을 넉넉히 메울 수 있다고 한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힘은 근육적 체력에 비례하는 것이기보다 책의 내용에 대한 흥미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최초의 학설을 필자는 믿는다. 어른은 청소년보다 흥미의 폭이 좁아질 수는 있지만 대신 깊이가 늘어날 수 있다.

실상 시력과 집중력은 독서에 관련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이루는 정신능력으로서, 그 능력은 발휘하면 할수록 더욱 증진되는 것이 정상인의 상태라고 한다. 사람의 눈은 질병이 생기지 않는 한, 안경, 기타 모든 기구를 사용하여서라도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신장된다고 한다. 책을 오래 안 읽은 눈은 흰 종이 위에 검은 잉크 자국으로 된 글자를 빨리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 쪽의 인쇄물에 담긴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도 책장뒤지기를 게을리한 사람에게서는 사라져

버린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책읽기는 가장 좋은 처방이 되는 것이다. 치매증 환자가 맨 처음으로 상실하는 능력이 바로 글읽기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치매증세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20년전에 철순을 넘기신 아버님이 "세월이 책장 넘기듯 간다"고 하셨었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책장을 넘기고 계셨다. 그분에게는 세월 보내시는 것이 책장 넘기시는 것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책장을 넘기시면서 세월을 보내셨다. 하루는 몇 쪽의 책장을 넘기셨기에 지나갔다.

그 말씀을 들던 나는 세월이 빠른 것은

절실히 느꼈지만, 책장을 쉴새없이 넘김으로써 세월의 빠름에 대처하겠다는 생각은 채 하지 못했었다. 책은 그냥 시간나면 읽는 것이 아닌가 하였었다. 그때에는 아닌게 아니라 시간도 꽤 나곤 하여 책 줄이나 읽기도 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온갖 세상일에 매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면서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일말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 아버님의 그 말씀은 전에 없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책장을 넘기면서 세월을 보내야만 그 죄책감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임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라도 글자 하나를, 글 한 쪽을, 책 한 권을 눈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을 힘껏 계속해야 할 것을 새삼 깨닫는다. 나이 먹어 가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경미하다 하여 소홀히 하기 쉬운 치매증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출판계는 20년만의 최대 불황이라고 한다. 사업하는 이들은 연말에는 으레 불황이라고 엄살을 부리지만, 이번 출판계의 불황은 상당히 사실이라고 한다.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 집단적 치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일이다. 새해에 그 증상이 가시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